

- 주요 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 러시아는 일부 군사활동 축소를 예고
 -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완화 미흡하면 빅스텝(0.5%p 금리인상) 가능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일본 재무성, 엔화 환율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하게 의견 교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진전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2%], 달러화 약세[-0.7%], 금리 하락[-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완화 등으로 매수세 강화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1.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9%, 0.8%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불안 완화가 반영 2y-10y 수익률 장중 역전
독일은 ECB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8년래 최고 수준

※ 원/달러 1M NDF환율(1209.3원, -11.3원) 0.9% 하락, 한국 CDS 하락

		3/29일	3/28일	전일대비			3/29일	3/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31.6	4,575.5	1.23%	국채 금리 10y	미국	2.39%	2.46%	-6bp
	유럽	462.09	454.17	1.74%		독일	0.63%	0.58%	6bp
	중국	3,203.9	3,214.5	-0.33%	CDS 5y	한국	28bp	30bp	-2bp
	일본	28,252	27,944	1.10%		중국	59bp	63bp	-4bp
	한국	2,741.1	2,729.6	0.42%	위험 지표	EMBI+	-	528	-
환율	달러지수	98.40	99.09	-0.69%		VIX	18.90	19.63	-3.72%
	유로화	1.1086	1.0985	0.92%		WTI유	104.24	105.96	-1.62%
	엔화	122.88	123.86	0.80%	원자재	구리	471.7	471.4	0.05%
	위안화	6.3642	6.3721	0.12%		금	1,919.4	1,922.8	-0.18%
	원화	1,219.8	1,227.3	0.6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 러시아는 일부 군사활동 축소를 예고

- 양국의 5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 체제 마련되면 중립국 지위 채택, 크림반도 지위 관련 러시아와 협의 등을 제안. 이는 NATO 가입 반대 및 중립국 지위를 요구한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
- 러시아 협상단은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지위 및 비핵보유국 지속 등을 추구하는 문서를 받았고, 이를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수용할 수 없으나 EU 가입은 용인한다고 첨언
- 러시아의 포민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앞두고 키이우 부근의 군사 활동을 축소시킬 것이며, 이는 양국의 협상 관련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 이러한 조치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로 평가
- 러시아 협상단 대표인 메진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키이우 인근의 군사활동 축소가 정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와 관련된 과도한 확대 해석을 경계. 미국 측 관계자들도 이는 키이우 지역의 러시아군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지적
-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공화국은 도네츠크 전역을 장악한 뒤 러시아 귀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편 러시아 재무부는 '35년 상환 예정인 채권의 이자(1.02억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 러시아는 지금까지 외화 부채이자를 모두 상환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차관, 러시아 공급망 차질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 고려

- 아데예모 차관은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 이번에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공급망 차질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첨언

■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완화 미흡하면 빅스텝(0.5%p 금리인상) 가능

- 하커 총재는 향후 6회의 0.25%p 인상을 지지하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의 징후가 충분하지 않으면 5월에 0.5%p 인상을 시행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 다만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제성장을 훼손할 수 있음을 주의하고 있다고 부연

■ 미국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비 상승. 양호한 노동시장 등이 반영

- 해당 지수는 107.2를 기록하여 전월(105.7) 및 예상치(107.0)를 모두 상회. 컨퍼런스보드의 Lynn Franco는 하위구성 항목 중에서 현황지수는 상승했지만, 선행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고 지적

■ JP모건, 미국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

- Marco Kolanovic 스트래티지스트는 ① 과거 통화긴축 사이클 초기에 주가는 상승 ②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이는 경제성장에 효과적 ③ 모든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시행하지는 않는 상황 등으로 향후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설명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ECB는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홀츠먼 총재는 연말까지 예금금리(현재 -0.5%)를 제로 수준까지 올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내년에는 더욱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서야만 한다고 경고. 스페인 중앙은행 데코스 총재는 3/4분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

■ 독일 4월 Gfk 소비자신뢰, '21년 2월 이후 최저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

- 해당 지수는 -15.5를 기록하여 예상치(-12)를 하회. 세부항목 기준으로는 경제 및 소득 전망 등이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Gfk의 Rolf Buerkl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코로나 19 확산 둔화 효과가 급격히 사라졌다고 진단

■ 일본 재무성, 엔화 환율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하게 의견 교환

- 마카토 칸다 차관은 미국 측과 기존 수준의 환율 유지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언. 이번 발언은 당국이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3/2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JOLTS 구인건수(만건): 1127, 1월(1126), 예상치(1100)
- 미국 1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전년비): 19.1% '21년 12월(18.6%), 예상치(18.4%)
- 미국 1월 FHFA 주택가격지수(전월비): 1.6%, '21년 12월(1.3%), 예상치(1.4%)

■ 주요 경제 이벤트(3/30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미국 3월 ADP 민간고용, 독일 3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긴축, 노동시장 과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WSI

(It Will Take a While for Hiring to Get Ground Down)

-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1명당 일자리 수는 1.8개이며, 이는 현재 노동자들의 구직 여건이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시사.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이 금리인상을 추진하여도 당분간 고용증가세를 악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에 연준이 주의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는 사실. 또한 후행적 성격인 고용지표가 악화된다면 경제는 이미 침체국면에 진입한 상태일 수도 있음을 경계할 필요

■ EU의 러시아 제재, 효과적인 해법 도출을 검토할 시점 - Financial Times

(How sanctions on Russian energy exports could work)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군사행동 제한과 전세계의 경제적 비용 축소를 위한 해법을 도출할 필요. 이상적인 제재의 목표는 글로벌 원유 수급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원유 판매를 통한 수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는 ① 러시아 원유 및 관련 수출품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통한 가격 상한제 도입, ②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는 시점까지 입출금을 제한 등이 요구. 동시에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위산업 활성화, 북미와 긴밀한 협력 등도 필요

■ 미국 통화당국, 경기 연착륙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는 위험 - 블룸버그

(The Fed Has Made a U.S. Recession Inevitable)

■ 중국,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전략이 요구 - Financial Times

(China's zero-Covid goal is no longer sustainable)

■ 미국 국채수익률 역전, 양적긴축에 따른 신용시장 충격을 경계할 필요 - 블룸버그

(Not All Yield Curve Inversions Are Fatal)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